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4.10.22.-2014.10.25

출장지: 중국 (연길·훈춘 및 백두산 일대)

출장자: 배 은 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중국 (훈춘·연길 및 백두산 일대)

2. 출장기간: 2014. 10. 22 - 2014. 10. 25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배은지	

4. 출장목적

- 국제 학술회의 및 현장보고를 통해 초점경지역의 실태와 최근 변화 동향을 파악
- 유관 현장 견학을 통해 대북협력 실태와 접경지역 물류 동향 파악
- 남북협력 및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한 물류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II.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10.22 (수)	인천	백두산		인천 출발 (심양 경유) → 백두산 도착
10.23 (목)	백두산	완다 리조트	백두산 (서파) 완다 리조트	백두산 문화탐방 백산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10.24 (금)	완다 리조트	훈춘	이도백하 도문경제개발구 훈춘 홍국국제호텔	북중 접경지역 제조업체 방문 온성섬 접경지역, 도문경제개발구 견학 초국경지역 물류협력 훈춘 세미나 참석
10.25 (토)	훈춘	인천		연길 출발 →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백산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 주제: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5년과 환동해 발전의 미래
- 일시 및 장소: 2014. 10. 23. 백산 완다 리조트 웨라톤 호텔
- 프로그램

*등록(14:45~15:00)	
*학술회의 전 행사(15:00~15:15)	
개회사 : 임진수 박사 (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환영사 : 김영운 박사 (남북물류포럼 대표) 축 사 : 현동일 교수 (연변대학교)	
*기념사진 촬영 및 만찬 (15:15~15:20)	
*학술회의(15:20~18:00) “창·지·투 5년과 초국경 협력의 미래”	
	좌장 : 전준수 부총장 (서강대학교)
발제(15:20~16:40) 1. 창·지·투 개발 개방 선도구 5년 평가와 전망: 박영애 박사 (길림대학교 교수) 2. 북중러간 다자 협력과 나진선봉지역 개발의 현재: 김성남 박사 (연변대학교 교수) 3. 북중러 3국 관광 및 환동해 관광사업화 전략: 심상진 박사 (경기대학교 교수) 4. “북한의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 연구” 김석주 박사 (연변대학교 교수)	
휴식(16:40~17:00)	
토론(17:00~18:30)	
김형태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 강태호 소장 (한겨레신문) 이태호 (한국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곽재원 박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원서 박사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중국 현지 참여자: 박성수 (길림성 개발판공실 고문), 박명화 국장 (길림신문)	

□ 발제 주요 내용

- 박영애 길림대학교 교수: 창·지·투 개발 개방 선도구 5년 평가와 전망

두만강 지역의 개발 및 개방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첫째, 구역의 조화임. 이는 선도구역 내 국경 최전방과 배후지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요구함. 둘째, 지역 통합의 발전으로, 대대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러시아 및 북한 인접지역의 통합을 강화함. 셋째, 구역의 연동으로 두만강 개발과 길림성 중부 경제 중심도시의 발전을 결합하여 국경지역과 내륙 중심지역의 우세를 상호 보완함.

이러한 계획의 실시에 따라 창지투 구역과 길림성 구역들의 조화로운 발전이 상당한 업적을 이룩하였고, 고속도로 전 구간 연결과 도시철도 운행, 여객 전용노선 건설 등 교통 통합 네트워크도 형성됨. 장춘과 지린의 통합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고, 내륙 중심지역 도시의 지탱능력도 강화되었으며, 연길-룡징-투먼 통합은 현재 심화 단계에 있음.

현존하는 주요 문제들로는 제도의 작동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투자 및 용자 환경이 경쟁 우위가 없음. 기초 설비에 대한 자원부족 문제, 심한 경쟁문제, 주변 정세 - 특히 한반도 정세의 복잡다변성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제도메커니즘의 혁신을 심화하고, 국가 각 부문 및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지지를 얻어내야 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북한 문제의 해결만이 창지투개발 및 개방 선도구 건설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

- 김성남 연변대학교 교수: 북중러간 다자 협력과 나진선봉지역 개발의 현재

라선경제특구에서의 중조협력 강화를 위해 첫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초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대중국 무역중심으로 만들어야 함. 둘째,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항만부두 기초기반시설을 강화하여 국제물류기지거점으로 만들어야 함. 중국자본으로 라선특구의 도로 및 철도시설을 보완하여 북한 관광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함.

라선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의 강화가 필요함.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대북투자는 중국과 한국 위주가 될 것임. 향후 북한은 라선경제특구에 대외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을 설립하고 현재의 외국인투자법규정에 대한 진일보된 수정과 구체적 실행규정들을 추가해야 하며,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함.

라선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특구에 대한 자주권을 대폭 부여하여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외자기업에 충분한 경영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전문 관리인원들의 입지 강화와 노동력의 국내 자유 이동이 이루어져야 함.

-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북중러 3국 관광 및 환동해 관광사업화 전략

관광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과 외화 획득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외화가득율이 90%를 넘어서는 다른 산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관광산업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가장 현실성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여러 특구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훈춘 -> 북한으로 여행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2,170명에서 2011년 17,000명으로 7.8배, 2012년에는 전년대비 5.9배 증가한 100,288 명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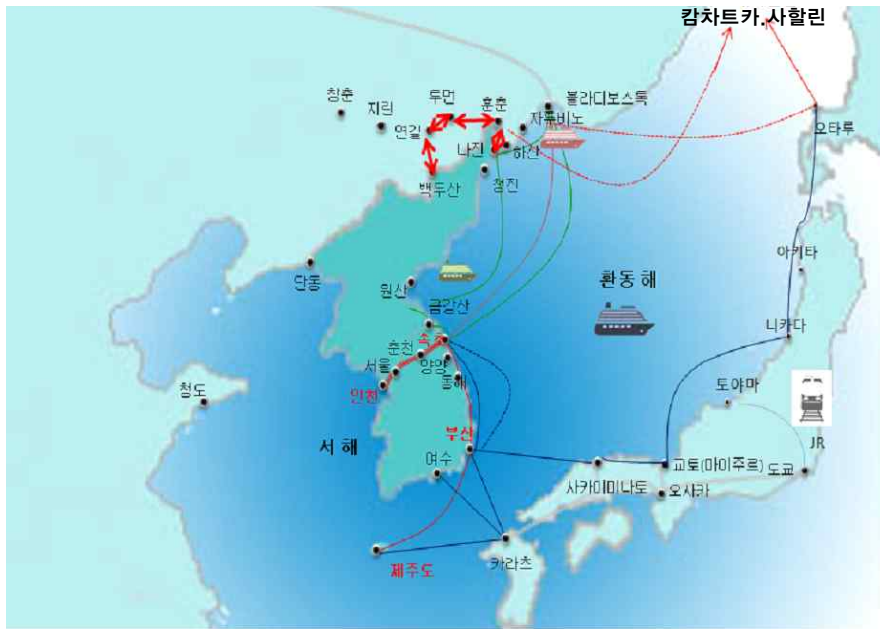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적합한 내외환경 -평화분위기, 국제기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북중러는 물론 남한과 일본을 포함한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핵심적 고리로서 외화 획득과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관광분야에서 남북한의 효율적인 협력도 중요함.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시아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관광개발투자 재원과 외국인관광객을 유치 가능하게 되어 외화수입 증가와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남한은 북중러 3국 관광과 환동해 관광의 성공이 현 정부가 주창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과 직결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함.

[그림 1] 남북한 간 나진·선봉 해양관광 루트(안)



[그림 2] 북·중·러 3국 관광 및 환동해 관광 연결 루트(안)



- 김석주 연변대학교 교수: 북한의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 연구

북한이 발표한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 관광 관련 개발구는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등 3개임. 신평관광개발구는 깊은 내륙에 위치하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단기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청수관광개발구는 화학공업기지였던 점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온성섬관광개발구는 다음 이유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① 연길에서 길림성 8경 중 하나인 방천 풍경구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연계관광에 적합함. ② 한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문과의 연계성. ③ 주요 교통 간선과의 근접성. ④ 중국 도문시와 북한이 2013. 12. 9. 북경에서 온성섬관광개발협약을 맺는 등 양국의 큰 관심. ⑤ 투자자금이 적게 듦. ⑥ 인근에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지로서의 구색을 갖추.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음. ① 도문시는 아직 경제가 낙후한 지역으로서 정부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② 전기, 도로, 접안시설 등의 하부구조가 매우 부족함. 현재 온성섬은 옥수수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③ 북한의 안정된 정치환경의 부재. ④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현 시점에서는 온성군과 도문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투자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함.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토론 주요 내용

- 추원서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초국경협력이야말로 단편적인 세계화의 현상으로, 초국경협력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미흡한 곳이 바로 두만강유역임. 이 문제를 풀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한국에 있다고 봄.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5·24조치의 해제가 시급함.

나진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리, 크게는 몽골까지 아우르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북한만을 위한 협력이 아닌,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남한을 위한 것이기도 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한과 북한, 중국 중에 누구의 관점에서 주장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함. 북한의 관점에서,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관광산업과 관련한 심상진 교수의 의견에 대해, 관광은 자본투자율이 크고 이익환수기간이 길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 또한 북한의 관광이 국제적으로도 괜찮은 상품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불안정하고 불편하다는 인식, 폐쇄성으로 인한 신비감만으로는 부족함.

농촌, MICE, 의료, 쇼핑, 레저, 산업, 전통·역사 등의 관광분야 중, 북한관광이 그려야 할 관광에 대한 그림은 영성과 의료에 건강과 힐링 정도의 컨셉이 되어야 한다고 봄. 북한 관광개발은 건축조경 학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면 안되며,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강태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상태 박사의 토론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관점은 남한의 것으로 보임. 낙후된 국가 입장에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의미와, 이미 남한 정도의 발전을 이룬 상태에서 보는 관광에 대한 의미는 다를 것임. 변화의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북한에게 관광산업의 육성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봄.

-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

국가급 경제개발은 많지만, 아직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 진행은 미비한 상황임. 물류기업들이 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미래전망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필요함. 이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고 투자예정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초국경지역 물류협력 훈춘 세미나 참석

□ 주제: 북중러 초국경 협력의 미래

□ 일시 및 장소: 2014. 10. 24. 훈춘 흥국 국제호텔 회의실

□ 프로그램

*학술회의 전 행사(16:30~16:40)	
개회사 : 임진수 박사 (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환영사 : 김영운 박사 (남북물류포럼 대표)	
*학술회의(16:40~19:00) “북중러 초국경 협력의 미래”	
좌장 : 곽재원 박사(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발제(16:40~17:40) 1. 북·중·러 접경지역 물류동향과 시사점: 연제성 대표 (훈춘 포스코현대 국제물류유한공사) 2. 중국 내륙지역 물류협력방안: 백산수 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순 회장 (농심 백산수 대표) 3. 법체계 개정을 통해서 본 북한의 변화전망: 한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토론(17:40~19:00)	
육재희 대표이사 (아천 글로벌) 유완영 대표이사 (유니코텍코리아) 남근우 교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김형근 박사 (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이영배 이사 (삼일회계법인) 박찬복 책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홍준 국장 (연변 도문시 경제개발구 투자촉진국)

□ 발제 주요 내용

- 연제성 훈춘포스코현대 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 북·중·러 접경지역 물류동향과 시사점

동북3성은 시장/투자, 정책, 지리적 측면에서 중국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중국은 '04년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진흥계획을 발표, 추진함. '09년에는 창지투 개발선도구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인프라개발이 본격화되었음. 훈춘시는 북중러 3각지역 중심의 물류거점으로서, 북-중간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장춘-훈춘간 고속도로 개통, 원정리-나진항간 도로 개보수공사 완료(중국 기준 2급포장도로), 신두만강대교 건설 착수, 훈춘-나진간 고속도로 및 철도 계획 중, 나진항 1호부두 시설보수 및 장비확충 중에 있음.

- 김병순 농심 백산수 대표: 중국 내륙지역 물류협력방안: 백산수 사례를 중심으로

농심 백산수 물류가 운송되는 연변주 인프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연변주 물류 운송망 건설로 2013년까지 도로 확포장 및 철도 건설에 350억여 원을 투입하여 한시간 경제권 형성. ② 장춘-훈춘 고속도로 완공으로 동북 3성 연계 고속도로 물류 운송망 구축. ③ 이도백하-훈춘 간 철도 연결 완공. ④ 장춘-길림-도문-훈춘 간 고속철도 2014년 준공 및 2015년 개통 예정. ⑤ 연길공항 국제·국내선 10곳 항로 증설 및 연길-올라지보토프스크 국제항로 추진, 연길공항 확장 이전사업 진행 중. ⑥ 러시아-북한 철도 보수 연계 및 공로 연계 실현.

북중러 접경지역의 물류인프라 발전 관련 문제들과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고, 일본, 한국 정부 다자간에 정치 통상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 합의가 필요함. ② 북중러 접경지역 두만강 하구를 세계적인 물류기지인 다국적 개방 경제특구도시로 개발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국 간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③ 통상 산업 관세, 물류 통관 절차 및 비용, 항로 및 항선 협상 주변국 간에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음. ④ 통상 항구 시설 개선 확충 문제는 주변국 합작 투자로 추진이 필요함.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체계 개정을 통해서 본 북한의 변화전망

최근 북한의 법제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헌법 개정을 전후로 일련의 눈에 띄는 변화를 엿볼 수 있음: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헌법과 노동당규약의 개정. ② 형법, 행정처벌법 등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법규 등의 제·개정. ③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관련법의 제·개정. ④ 북한의 외국인 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제를 비롯하여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제·개정 등.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법뿐임.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핵포기를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뿐임. 극히 제한된 개방정책을 수반한 자체적 경제개혁 조치만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전면적 혹은 보다 확대된 개방정책 추진은 곧 현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채택하기 힘들 것임.

앞으로도 북한의 상경제 영역 확대로 주민들의 각종 위법 및 탈법 행위는 그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발생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북한 당국의 각종 법적 통제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반국가사범 외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벌금형의 적용 확대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도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토론 주요 내용

- 이영배

농심 광천수의 경우,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강점도 있지만 그것이 독점권은 아니라고 생각함. 외국 기업들도 동일시장에 뛰어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회계, 법률, 각 국가들간의 세법 비교연구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근우

남북중러 물류분야의 활성화가 이번 포럼의 목표 중 하나임. 통일을 위한 경제체제의 통합단계로서 의미가 있음. 주민들의 사고나 의식 등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화인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자꾸만 교류가 단절되고 있음.

이윤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회적 책임 부문임. 낙후된 학교시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통일환경 조성에도 기여 가능할 것임.

- 박찬복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고객과 시장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했는지에 대한 표기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에너지 관련 문제들은 모든 물류 이동과 연결되어 있음. 전력 불안정과 그로 인한 철도 수송 불안정의 문제 등, 표준계량 등 실제적 문제 고려해야 할 것임.

극동지역 물류 활성화 위해서는, 전체적 그림과 사안들의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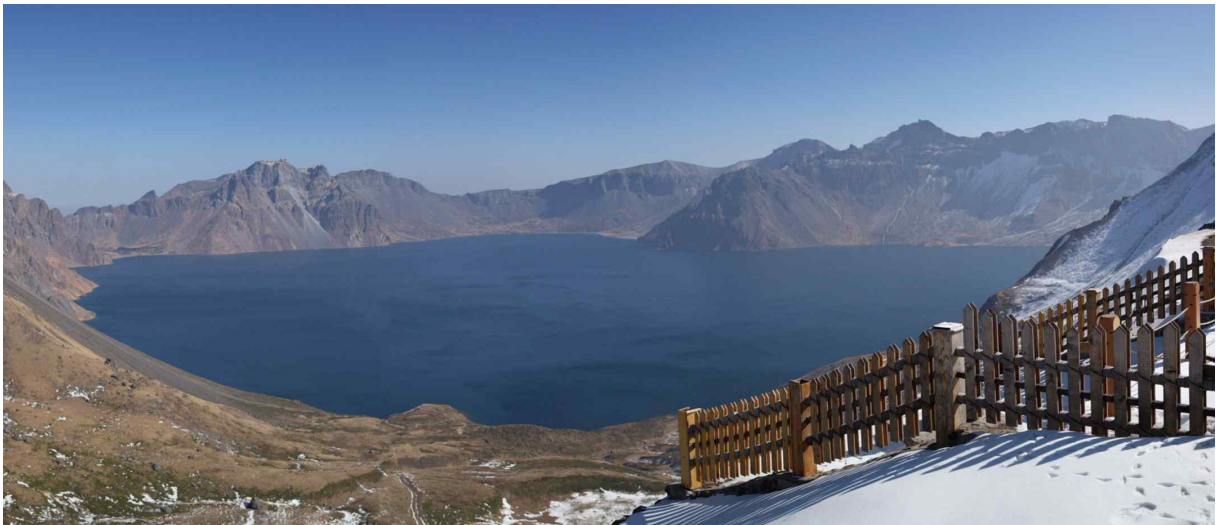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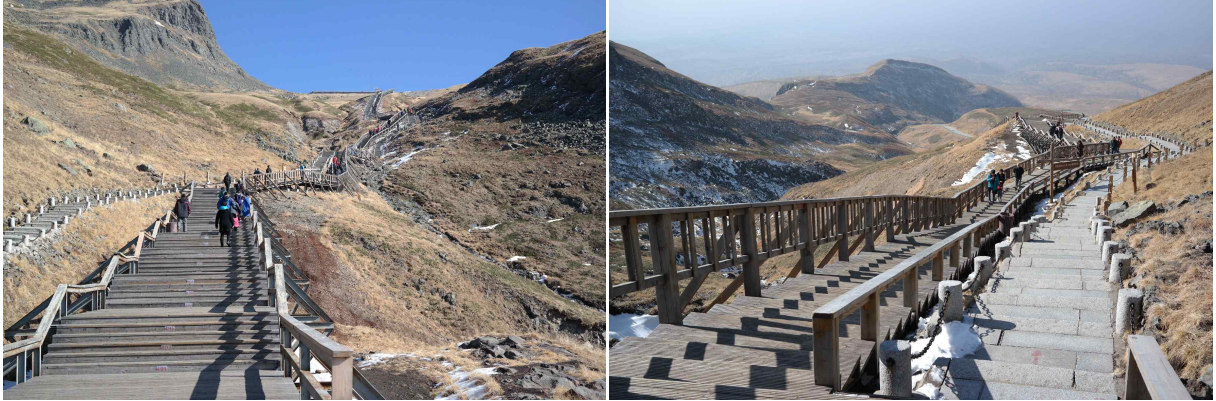
- 김형근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43%에 이르는 백산수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5-7%까지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포스코의 경우 석탄과 철강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할 것임.

양일간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한 7개의 발제를 망라하여, 각 기관과 기업, 학교 등이 협력하여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적인 교류 및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3. 유관현장방문 및 견학

□ 백두산 문화탐방 (서파)



□ 북중 접경지역 제조업체 방문 (농심 백산수 확장부지 및 공장)





□ 도문경제개발구



□ 온성섬 접경지역

